

청년의 삶을 바꾸는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 실현

- 박홍근 장관, 첫 행보로 '청년 일자리·창업 현장' 방문 -

-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생태계 조성
- 다양한 일경험 확대, 초기 창업부터 사업화, 실패시 재도전 등 지원 강화
-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'살아있는 정책과 예산'으로 화답

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월 26일(목)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대전 스타트업 파크*를 방문하여 청년 일자리·창업 현장을 점검하고, 청년들의 취·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* 민간혁신 과학기술 창업클러스터로, KAIST, 충남대, 정부출연연 27개, 대덕특구내 연구기관 2,454개소, 투자사, 스타트업 등 우수한 기술창업 인프라 집적지

금일 간담회에는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부터 정부 지원을 통해 취·창업에 성공한 청년, AI·항공우주·돌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 대표까지 참석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전달하였다.

<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>

- 일시/장소 : '26.3.26(목), 14:30 ~ 16:00 / 대전 스타트업 파크(대전 유성구 궁동)
- 참석자 : (정부) 기획처 장관, 기획처 통합성장정책관·경제예산심의관·대변인
중기부 기획조정실장,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등 6명
(민간) 청년 창업기업 대표, 정부 지원 후 취·창업 성공 청년,
취업 준비생 등 6명
(유관기관)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,
배재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컨설턴트 등 2명

박 장관은 일자리는 단순한 고용지표나 숫자의 문제가 아닌 '우리 경제의 성적표'이자 '국민생활 안정과 복지의 출발점'이라 강조하였다. 특히, AI 대전환 등에 따른 일자리 재편으로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취·창업

기회가 감소하고 있으며, 청년의 어려움이 곧 우리 경제 미래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.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, 이를 위해 교육·취업·주거 전반에서 기회의 접근성을 확대하고,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구축을 뒷받침하는 등 ‘따뜻하고 유능한 재정’을 실현할 계획임을 밝혔다.

금일 참석한 청년들은 취업 준비생, 구직단념청년 등의 ▲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,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기 위해 ▲지방에 특화된 창업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. 또한, ▲초기 창업기업의 보육·컨설팅 지원과 ▲스케일업을 위한 R&D 지원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, ▲창업 실패시에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.

박 장관은 중기부·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오늘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년들의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 특히, ①민간 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현장 연계형 직업훈련 등 일경험 기회를 확대할 것이며, ②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혁신 창업가로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부터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, 실패시 재도전할 수 있는 재창업 교육·자금 지원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. 또한, ③지방에서도 원하는 일자리와 생활이 가능해지도록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방 우대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.

마지막으로 기획예산처는 ④청년들이 변화를 스스로 체감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 귀 기울여 ‘살아있는 정책과 예산’으로 화답할 것이며, ⑤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시야에서 청년들이 살아갈 미래 삶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‘중장기 전략’을 금년중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.

담당 부서	미래전략기획실 상생협력전략과	책임자	과 장	이정운 (044-214-1750)
		담당자	사무관	배준혜 (jhbae10@korea.kr)
			사무관	양성철 (yg1102@korea.kr)

